생활 속 마음챙김, 행복의 지름길



아남 툽텐 린포체(Anam Thubten Rinpoche)는… 티벳에서 태어나 티벳 불교의 닝마파 전통에서 수행했다.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의 대부분을 사원에서 보내며 라마 추르로(Lama Tsurlo), 켄포 쵸펠(Khenpo Chopel), 라마 갈왕(Lama Garwang)과 같은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명상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다르마타 재단은 미국을 비롯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으로 2년 과정의 '다르마 리더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행복수업 초청으로 첫 방한한 이후로 매년 한국을 찾아 법을 전하고 있다. 린포체는 특히 한국의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청년들도 린포체를 따르고 사랑한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티베트 스님의 노 프라블럼〉, 〈알아차림의 기적〉, 〈모든 순간 껴안기〉가 있다.

특별인터뷰 **아남툽텐 린포체** (다르마타 재단 설립자)

세첸코리아 초청 방한 행사 가져

12월 7~8일 국제선센터 강연

9~14일 백담사서 수행 이끌어

로종수행 · 마음의본성 지도

티베트 주요 스승에 사사

1990년대 미국서 전법

50여 국가 수행 승가 지도

"한국 불교수행 대중화되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구사회에서는 티베트 불교 열풍으로 칭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티베트 스님들이 대중교화에 나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티베트불교가 전파되고 있다.

티베트불교의 전파에는 세첸코리아와 아남툽텐 린포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첸코리아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아남툽텐 린포체 초청 티베트 로종 수행 강연회와 함께 9~14일 인제 백담사에서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한국 대중들을 지도할 아남툽텐 린포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미국에서 다르마타재단을 세워 티베트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2014년 첫 방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롱첸닝틱, 쬐 등 다양한 금강승 수행을 전하고 있다. 그가 한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주로 로종 수행을 한국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불자들은 이 로종 수행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로종 수행의 핵심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로종은 인도 아띠샤(Atia) 존자에 의해 생겨났지만, 주로 티벳 불교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종은 마음 훈련으로 번역이 됩니다. 로종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의식을 변화시키고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과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불행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과학이나 철학, 심리학에서도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행복에 이를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완벽한 답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고통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또한 삶의 의미에 이르는 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로종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잘이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생각 패턴이나 자기감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의 습관을, 정신적인 습관을 잘 모릅니다.

로종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업의 구조와 심리의 구조를 알게 됩니다. 이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고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혐오 같은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종의 첫 부분으로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알아차림을 수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혜택이 없는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해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종의 두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순수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행과 마음수행 없이는, 놀라운 선물 같은 마음이 있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훌륭한 보석이 있거나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주 훌륭하고 기능이 뛰어난, 잘 날 수 비행기가 있는데도 그 비행기를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고 무량한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고 광범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종은 마음의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물 같고 은혜 같은 마음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마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종 수행은 불교 수행으로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건,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그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마음 훈련 8구절을 활용하고, 그 마음 훈련 8구절의 풀이를 할 것입니다.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님께서 일상에서 의식의 전환을 통해 느끼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A: 불교 수행의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벳 불교 수행의 주요 목적은 마음의 본성에 깨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가장 깊고 심오한 차원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승려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마음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 스승들은 마음의 본성을 내면의 부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타가따가르바, 여래장이라고도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한월법장의 선법사상

B5
문화
동국대박물관 2018 특별전시
'전단지향–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B6
학술 · 문화재
동국대 ABC사업단,
〈용암당유고 · 괄허집〉 발간

수행 통한 '자비' 발현, 사회 갈등 해소

'아남툽텐 린포체'

B1면에서 계속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본성인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대체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의식의 표면입니다. 생각과 감정 말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파도가 아닌 신성하고 위대한 바다에 비유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표면에 그렇게 빠져있고 고착되어 있으면 생각과 감정이 마음의 본성의 표현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면과 마음의 본성을 구별할 줄 모르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실인줄 알고 실상인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믿기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더 생생하고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거대한 철학이라서 그 개념들을 아주 몇 년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안내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안내하는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명상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갑작스럽게 마음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고 심오하고 평화롭고 항상 있는 마음자리를 깊이 통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저 파도뿐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엉키지 않게 됩니다. 뒤엉키지 않는 것을 배우면 생각과 감정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본성에 깨어나고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일상생활에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Q: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계속 수행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밖에도 현대인들이 쉽게 수행하기 위한 수행법은 따로 있을까요?



A: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오래된 습관으로 반응하거나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와 공격적인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용기, 평등심과 이해로 접하면 마음의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쉬운 수행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알아차림 수행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접하기도 쉽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행입니다. 여러 가지 경계와 벽을 무너지게 하는데요, 종교적인 벽 같은 것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 명상에 대한 유익한 자료도 많고 다양한 종류의 명상 안내들도 많아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Q: 로종 수행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비심의 확장과 공성을 깨달으면 결국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불교 수행이 개인의 체험에 끝나지 않고 사회에서 자비실천으로 발현되는데 스님께서는 이러한 실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교계가 특히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티베트 로종은 의식 전환 수행법
자비심 바탕해 사회적 실천 강조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 조언도
"새 환경 적응해야 살아남아"

A: 어떤 사회라도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비심이 없는 사회는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사회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사람 사이에, 문화 사이에, 정치적 단체 사이에 서로 판단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화가 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게 되고, 판단을 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실천하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치유 할 수 있고, 세상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매일 같이 자비심을 실천한다면, 화를 덜 내고 판단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Q: 티베트불교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사회에서는 티베트 불교 열풍이 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구체적인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티베트 불교 열풍이 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불교계가 티벳불교계에 본받아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티베트불교가 세계적으로, 서양인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1960년도부터 여러 티베트 스승들이 온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스승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교의 가르침, 이 아주 소중한 선물을 세계와 나누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보살계에 해당됩니다. 보살계는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접해서 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불교가 어떻게 티벳 불교를 본받을 수 있냐고 하면, 미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스승들을 세계 여러 국가에 보내 다른 문화와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많은 비범한 한국 스승들이 다른 나라로 갔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 다르마타 재단을 세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 명상을 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또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A: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꽤 편하게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사람을 이해하기나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 차이였습니다. 서구문화는 불교문화가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불교문화가 근간에 있어 사람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도 있고, 새롭게 문화를 소개하거나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주 기초부터 불교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찰과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보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소개할 때 이미 있는 전통이나 지식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많습니다.

Q: 명상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작용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런 명상을 포교나 전법의 일환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네.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상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 같은데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종교적인 수행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명상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 역사와 철학적 배경 같은 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요. 명상의 배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Q: 한국에는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수행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간화선은 현재 대중적인 저변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대중화 관점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제언해 주십시오.

A: 한국 불교는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답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위대한 스승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인과 사상가와 저자들이 나왔죠.

한국 불교가 다른 불교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불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불교가 사랑과 지혜에 기반을 둔 전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 스승들이 새로운 시대와 현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불법을 새롭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나 티벳 불교나 살아 남으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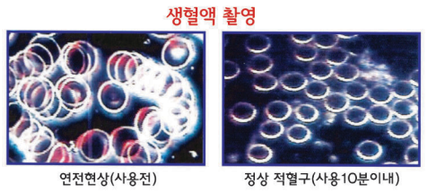
21세기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겪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이슈가 무언지, 경제적인 이슈가 무언지를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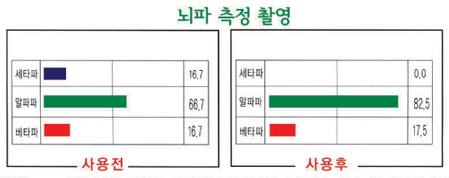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 버 섯 / 제거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 충치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